



미 증시, 경제 지표 개선에 최고치 경신

미 증시 변화 요인: 경제 지표 호조, 국채 금리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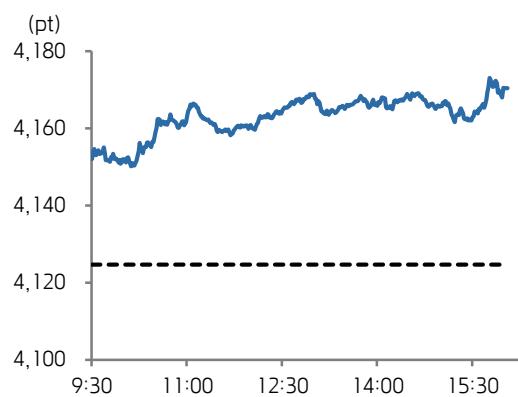
미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 지표와 금융주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상승 출발. 이날 발표된 다수의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을 뿐 아니라,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하며 경기의 강한 회복세를 보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급락, 성장주 및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. (다우 +0.90%, 나스닥 +1.31%, S&P500 +1.11%, 러셀 2000 +0.42%)

장전 발표된 미국의 3 월 소매판매 지표는 작년 5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. 전월 대비 9.8% 증가로 발표되며, 예상치(5.8%) 및 이전치(-3.0%) 대폭 상회. 3 월 부양책(인당 1,400 달러) 영향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인 57 만 6000 건을 기록하는 등 예상치(70 만 건) 하회. 4 월 뉴욕주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26.3 으로 2017 년 10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, 예상치(20.0) 및 이전치(17.4) 모두 상회. 4 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50 년만의 최고치인 50.2 로 발표되며 예상치(42.0) 및 이전치(44.5) 상회. 다만, 3 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.4% 증가하며 이전치(-2.6%) 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(2.7%)는 소폭 하회.

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, 미 국채 10 년물 금리는 추가 하락하며 1.50%대에서 거래되었고 4 주 내 최저치 기록. 경기의 강한 회복세가 지표로 확인됐지만, 1 분기의 강한 매도세 이후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속커버링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. 이에 애플(+1.87%), 마이크로소프트(+1.53%), 아마존(+1.38%) 등 시총 상위 기술주가 1%대 강세. 엔비디아(+5.63%), AMD(+5.68%) 또한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 등에 힘입어 강세. 반면, 씨티그룹(-0.48%), 뱅크오브아메리카(-2.86%) 등은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점이 특징.

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“채권 매입 축소를 고려할 시기가 근접하지 않았다”고 언급하는 등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를 일부 해소. 나아가 경기는 “올해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, 2022년에는 둔화될 것”이라고 밝힘. 이와 같은 발언으로 채권 시장 매수세 확대 및 VIX 지수는 2.47% 하락.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 등락률(%)	Close	D-1	지수 등락률(%)	Close	D-1
KOSPI	3,194.33	+0.38	홍콩항셍	28,793.14	-0.37
KOSDAQ	1013.9	-0.05	영국	6,983.50	+0.63
DOW	34,035.99	+0.90	독일	15,255.33	+0.30
NASDAQ	14,038.76	+1.31	프랑스	6,234.14	+0.41
S&P 500	4,170.42	+1.11	스페인	8,571.60	-0.20
상하이종합	3,398.99	-0.52	그리스	905.31	+0.36
일본	29,642.69	+0.07	이탈리아	24,528.69	-0.19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증시 전망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78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91% 상승. EUREX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0.44% 상승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79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116.0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약 0.5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오늘 한국 증시는 IT 및 헬스케어 등 성장주 중심의 상승을 예상.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,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되는 환경 등이 성장주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 나아가 소매판매 항목 중 의류 매출 18.1% 증가, 음식료 13.4% 증가에 주목, 관련 수혜 업종 부각될 것으로 보임. 전일 코스피 소형주 지수가 17 거래일 만에 하락. 단기적으로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됨.

미국 장중 이슈 종목

- S&P 500 High: GPU 및 CPU 업체,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(AMD) +5.68% / \$83.01. 레이몬드 제임스가 CPU 시장에서 동사의 경쟁우위는 최소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. 투자의견 '시장수익률 상회', 목표주가 \$100로 커버리지 개시. 함께 투자의견 '시장수익률 상회'→'강력매수', 목표주가 \$700→\$750로 각각 상향한 NVDA +5.63%, XLNX +5.25%, MCHP +2.62%
- S&P 500 Low: 금융지주 회사,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(TFC) -4.14% / \$57.22. 장 시작 전 1Q FY21 실적 발표. YoY 매출 -2.5% 및 EPS +35.6%로 모두 전망치 상회. 대손충당금 환입 효과와 국채금리 하락 영향.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SCHW -2.88%, BAC -2.86%, USB -2.17%, C -0.51%. BLK +2.09%
- IT 하드웨어 업체, 델 테크놀로지스 (DELL) +6.71% / \$98.92. 자회사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브이엠웨어의 지분 81%, \$520 억 규모를 정리하여 분사를 추진. 장전 +8% 가까이 상승. 파이퍼 샌들러가 지배구조 리스크 등이 해소된다고 분석, 목표주가 \$158→\$180 상향한 VMW +2.95%
- 우주여행 업체, 버진 갤럭틱 (SPCE) -13.57% / \$23.06. 설립자 리차드 브랜슨이 본인이 소속된 4개 법인을 통해 지난 3거래일간 558.4 만주, \$1.5 억 규모의 자사주 매각. 3월 05일(금) 동사의 회장인 채매스 팔리하피티아가 개인 소유 주식 620만 주를 약 \$2.13 억에 매각한 사례. 당시 -10%
- 의류 업체, 아메리칸 이글 (AEO) +4.09% / \$34.33. 전일 장 마감 후 1Q FY21 가이던스 발표. YoY 매출 +10% 중반인 \$10 억 및 영업이익 \$1.2 억 예상. 5월 01일 실적 발표 예정. TJX +0.92%, ROST +1.73%, GPS +2.20%, GES +5.02%. 이 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UNH +3.83%, PEP +0.14%.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DAL -2.80%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에너지	368.50	-0.88	+0.64	-5.08
소재	512.90	+1.26	+2.89	+3.97
산업재	853.19	+0.39	+1.37	+4.02
경기소비재	1,429.00	+0.84	+2.42	+5.63
필수소비재	712.74	+0.80	+0.63	+5.01
헬스케어	1,404.75	+1.74	+3.31	+5.21
금융	584.25	-0.11	+0.92	+2.44
IT	2,518.11	+1.79	+2.09	+7.36
커뮤니케이션	251.65	+1.27	+0.05	+3.32
유틸리티	338.81	+1.11	+2.75	+7.80
부동산	258.34	+1.95	+2.59	+5.62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(XOP)	-1.54	대형 가치주 ETF(IVE)	+0.49
에너지섹터 ETF(OIH)	-2.34	중형 가치주 ETF(IWS)	+0.67
소매업체 ETF(XRT)	+0.33	소형 가치주 ETF(IWN)	+0.25
금융섹터 ETF(XLF)	-0.09	대형 성장주 ETF(VUG)	+1.58
기술섹터 ETF(XLK)	+1.72	중형 성장주 ETF(IWP)	+1.69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+1.13	소형 성장주 ETF(IWO)	+0.52
인터넷업체 ETF(FDN)	+1.72	배당주 ETF(DVY)	+0.40
리츠업체 ETF(XLRE)	+1.90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+1.17
주택건설업체 ETF(XHB)	+0.46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+0.83
바이오섹터 ETF(IBB)	+1.22	미국 국채 ETF(IEF)	+0.64
헬스케어 ETF(XLV)	+1.71	하이일드 ETF(JNK)	+0.41
곡물 ETF(DBA)	+0.23	물가연동채 ETF(TIP)	+0.54
반도체 ETF(SMH)	+1.28	Long/short ETF(BTAL)	+0.53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63.15	+4.94	+5.66	Dollar Index	91.641	-0.23	-0.88
브렌트유	66.58	+4.57	+5.41	EUR/USD	1.198	+0.27	+0.94
금	1736.3	-0.65	-0.30	USD/JPY	108.93	-0.12	-0.84
은	25,524	+0.39	+1.10	GBP/USD	1.3779	+0.21	+0.31
알루미늄	2293	+1.37	+1.10	USD/CHF	0.9225	+0.17	-0.84
전기동	8899.5	+0.43	-1.63	AUD/USD	0.7728	+1.14	+1.50
아연	2785.5	+1.00	-1.36	USD/CAD	1.2521	-0.11	-0.70
옥수수	579.5	+2.29	+6.14	USD/BRL	5.6535	-1.13	+0.66
밀	650.25	+2.64	+5.56	USD/CNH	6.5316	-0.18	-0.26
대두	1402.25	+1.26	-0.05	USD/KRW	1116.6	-0.83	+0.03
커피	134.05	+1.59	+4.16	USD/KRW NDF 1M	1116.02	-0.55	-0.30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1.6323	+1.78	-4.16	스페인	0.386	-0.30	+4.20
한국	1.992	-3.30	-6.80	포르투갈	0.391	-3.30	+15.30
일본	0.093	-1.40	-0.60	그리스	0.906	-1.40	+5.90
독일	-0.258	+3.40	+6.60	이탈리아	0.748	+3.40	+5.70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